



발행처 한동대학교 공학교육혁신센터
경북도함시 북구 흥해읍 한동로 558 한동대학교 뉴타운 114호
Tel (054) 260-1526~1530
Fax (054) 260-1529
Email hicee@handong.edu
Website hicee.handong.edu


HICEE 한동공학교육혁신센터

VOL. 12

Tecnologia Gia **Basilei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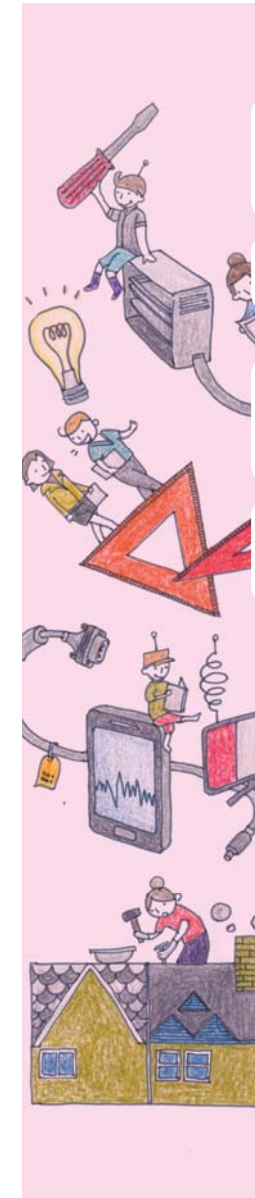
기술과 그의 나라

한동대학교 공학교육혁신센터
뉴스레터 제 12호



HGU **한동대학교**
HANDONG GLOBAL UNIVERSITY

2013
Handong HICEE
News Letter 12
Technologia Gia
Basileia



Contents

- 03 융합캡스톤 연구 활성화를 위한 제언
- 04 미래의 꿈을 이루어 가는 Career (진로) 코칭
- 06 효과적인 의사소통
- 07 공학교육인증제 안내
- 08 미국에서 엔지니어로 살기
- 10 한동의 후배님들에게...
- 학생소감문**
- 12 Curriculum exchange를 위한 Taylor University 방문기
- 13 내가 디자인하는 미래 그리고 오늘의 실천
- 14 창의총전소, 다국적 프로젝트 팀
- 16 컴퓨터 공학과 적정 기술
- 18 학부 소식 & 학회소개
- 24 혁신센터뉴스
- 28 광고

융합캡스톤 연구 활성화를 위한 제언

정보사회가 정점을 향해 달려가면서 사회가 요구하는 인재의 모습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한 때에는 한 가지 전문성을 확보하고 그것을 얼마나 심화하느냐가 우수 인재의 기준이 되었으나 현재는 얼마나 창의적으로 문제를 잘 해결하고 새로운 가능성을 잘 찾느냐가 기업과 사회가 요구하는 인재의 가치 기준이 되었습니다. 자연스럽게 교육도 그러한 인재를 키워내는 데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창의적이고 융합적 소양을 잘 갖춘 인재를 어떻게 길러내느냐가 우리의 사명으로 다가옵니다. 그런 점에서 한동대학교는 개교 초기부터 이러한 변화를 잘 읽어낸 학교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생각되고,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는 잘 길러진 차별화된 인재를 사회 각계 각층에 꾸준히 파송하는 것이겠지요.

10여년 전에 직장에 있을 때에 제품개발을 위해 상품기획팀, 설계팀, 해외영업팀, 디자인팀이 한 팀으로 묶여서 일한 기억이 몇 번이나 있었습니다. 출장을 가서 시장조사를 하면 참 재미있는 장면이 연출되었는데요, 같이 가서는 갑자기 흩어져서 각자의 입장에서 필요한 것만 집착하는 것이죠. 디자인팀은 열심히 다양한 제품의 스타일과 컬러, 그리고 기능을 탐색하느라 바빴고, 상품기획팀은 제품군이 규격과 가격 별로 어떻게 나뉘어져 있나 포장박스를 보며 열심히 살펴봅니다. 영업팀은 담당자 만나서 '이거 한달에 몇 대 팔아요?' 하면서 질문을 이어가고 설계팀은 물론 하나 틀더니 내부 구조를 속속들이 살펴보면서 감탄사를 연발합니다. 그러곤 돌아와서 각자 보고서를 작성하고 자신이 속한 팀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정리합니다. 서로 알게 된 사실을 공유하거나 알고자 하는 필요를 별로 느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순서에 따라 자기 일만 잘 하면 별 문제가 없었으니까요. 무엇보다도, 다른 사람의 일을 알고 싶어할 만큼 마음의 여유도 없다고 할까요?

여러 이유로 자신의 전공과 영역의 경계를 넘기가 매우 힘들습니다. 그러나 만일 넘어설 수 있다면 과거에 보지 못했던 새로운 기회와 가능성들이 무수하게 다가오는 놀라운 경험을 하

게 됩니다. 보이지 않던 문제의 실마리가 보이기 시작하고 내가 해야 할 역할 뿐 아니라 해결을 위해 어떤 자원이 필요한지도 명확해집니다. 놀라운 것은 시야가 넓어지면서 세상에 무엇이 필요한지 조금씩 알게 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실리 콘밸리의 여러 기업들이 왜 성공을 할 수 있었는지 관찰해 보면, 이들은 세상에 무엇이 필요한지 한 발 앞서 예측을 잘 한 것 같습니다. 특별히 경영자들이 보여 준 폭 넓은 관심과 센스에서 그 성공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더하여 이 사람들의 타고난 성향인 지는 몰라도 다들 호기심과 모험심이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에 따라 다양한 사람들을 늘 만나기 원하고 엄청난 양의 대화와 상호작용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상대방의 선을 넘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좋은 생각들과 자원들이 공유되고 창조를 향한 의기투합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추측한다면 넌센스일까요? 그러나 만일 그런 것이라면 우리가 원하는 이상적인 융합은 이런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 봅니다. 그리고 이미 경계 없는 교육과정과 팀을 근간으로 생활 공동체를 꾸리고 있는 한동대학교는 무척이나 기쁜 발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학생들은 매우 자연스럽게 전공과 관심의 선을 넘습니다. 물론 전문성은 아무리 봐도 부족해 보입니다만, 열심히 선을 넘다 보니 어떤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디서 무엇을 가져와야 하는지, 누구에게 도움을 받아야 하는지 금방 깨닫는 것 같습니다. 팀 활동을 통해서 다른 전공의 방들이 방송인들의 이야기를 안 들을래야 안 들을 수가 없습니다. 자연스럽게 간접 경험을 하면서 관심과 지식을 갖게 되지요. 요사이는 성격이 편이하게 다른 전공들을 함께 공부하는 학생들도 많이 만나게 됩니다. 가르치는 입장에서는 '도대체 왜?' 라고 말하고 싶지만 또 다른 가능성이 자라는 것이니 말릴 수 없지요. 하여튼, 한동대학교는 참 신기하고 대단한 학생들이 많이 자라고 있는 곳입니다.

이런 환경에서 융합캡스톤 연구는 학생들이 서로 선을 더 잘 넘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좋은 놀이터가 될 수 있다고 생각

합니다. 학문적 배경이 다른 사람들이 계속 상호작용하면서 다른 전공에 대한 일정 수준의 지식과 경험을 함양하게 될 것입니다. 시야가 넓어지면서 자신감도 갖게 되고 새로운 모험도 생각해 볼 수 있겠지요. 이러한 시스템을 통해서 우리는 궁극적인 유기적인 융합형 인재의 탄생을 기대하게 됩니다. 앞만 볼 줄 아는 사람이 아니라 옆을 보면서 자기 위치를 잘 잡을 줄 아는 사람이지요. 나아가 옆에 있는 사람에게 어디 있어야 하는지 알려주기까지 한다면 금상첨화일 것입니다. 이러한 형태의 연구가 잘 진행되기 위해서 서로 선을 잘 넘을 수 있어야 하지만 남이 넘어오는 것에 대해서도 열심히 반겨야 합니다. 잘 가르쳐 주고 따뜻하게 안내할 수 있는 인성이 갖추어져야 할 것입니다. 제 경험으로는, 팀 활동의 결과는 각자가 가진 역량도 중요하지만 구성원들 사이의 좋은 관계만큼 중요한 요소는 없다고 믿습니다. 즉, 사이가 좋은 팀은 결국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 낼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팀 안에서 서로 격려하고 존중하는 태도와 분위기를 갖추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성교육을 강조해야 하는 이유도 결국 어디에 가도 좋은 관계를 만들어 낼 수 있는 인재를 세상이 간절히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융합캡스톤 연구에 참여하면서 몇 가지 찾아낸 개선사항을 정리한 것입니다. 첫째, 융합캡스톤연구에 참여하고자 하는 학부들은 연구 기간을 함께 조율할 필요가 있습니다. 산업정보디자인학부의 경우, 졸업연구에 해당하는 Capstone Design 1,2가 4학년 1,2학기에 걸쳐서 개설됩니다. 그런데, 대부분 공학계열의 전공 학생들은 3학년 2학기에 Capstone Design을 시작하여 자연스럽게 그 해 겨울 계절학기로 이어진다고 합니다. 4학년 1학기에 이미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게 되는데, 2012년에 진행했던 과정을 살펴보면, 전산전자공학부 학생들과 산업정보디자인학부 학생들의 스케줄이 맞지 않아 몇 가지 중요한 부분을 놓쳤다고 생각이 됩니다. 전산전자공학부 학생들이 이미 구체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상태에서 나중에 산업정보디자인학부 학생들이 참여하였는데, 이런 경우 처음 제

품의 방향성이나 그에 맞는 중요한 기능을 정하는 과정을 함께 하지 못하게 됩니다. 즉, 어떤 물건이나 서비스나 세상에 태어날 때에는 왜 태어나야 하는지 분명한 이유와 사명이 있어야 하는데, 그것들을 정하는 Research & Planning 과정을 같이 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연구 과정에 수정하기도 어려울 뿐 아니라 결국 각자 자기 배운 것만 충실히 하고 끝나는, 엄밀히 말하면 유기적 융합연구라고 말하기 어려운 경우가 될 수도 있습니다.

둘째, 학생들이 취득할 수 있는 학점과 과목의 수준에 대한 어느 정도의 합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 학부의 학생이 함께 참여할 경우 서로 학점이나 수준이 맞지 않으면 성적산출에도 어려움이 있을 뿐 아니라 여러 불합리한 경우가 생길 것이라고 쉽게 예상할 수 있습니다. 같은 수준의 연구를 하면서 누구는 3학점을 이수하고 누구는 6학점을 이수한 결과가 된다면 학생들 입장에서 약간의 박탈감도 생길 수 있겠지요.

셋째, 평가를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미리 공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팀으로 작업을 하는 경우, 각자의 역할이 다르고 물리적인 업무의 양도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적 평가를 하기가 정말 어려워집니다. 정량화할 수 있는 요소도 한계가 있기 마련이고 만일에 엄격한 상대평가방법을 적용한다고 하면 더더욱 예상하기 어려운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교수님께 Capstone Design을 신청한 학생이 15명이라고 했을 때, 팀 별로 점수를 차등해서 줄 것인지, 아니면 철저하게 개인적으로 줄 것인지 정확하게 선정하지 않으면 성적 산출 시에 많은 혼선이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실제적인 조율을 감당하기 위해 공학교육혁신센터 및 지도교수님들의 역할과 리더십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좋은 기회를 잘 살려서 다른 학교에서는 키워낼 수 없는 '디 오리진' 융합형 인재가 많이 길러졌으면 합니다. 창조와 융합을 강조하는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 학생들에게 참 좋은 기회가 많이 생길 것 같습니다.

최인옥

한동대학교 산업정보디자인학부 교수



미래의 꿈을 이루어가는 Career (진로) 코칭

김정원

한동대학교 겸임교수
한국리더십센터 전문코치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많은 능력을 주셨지만 두 가지 능력 즉 미래를 볼 수 있는 눈과 자신을 볼 수 있는 눈은 허락하지 않으셨다. 그러기에 이 두 가지 분야에는 우리들의 특별한 노력이 있어야 한다. 미래가 어떻게 될 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말이 씨가 된다라는 말이 있다. 또한 자신이 누구인지 자신에 대해 알아가기 위해 다른 사람들과 대화를 통해 스스로를 발견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자신이 갖는 자신의 이미지가 어떤가에 따라 자신의 행동이 달라지게 되기 때문이다. 12명의 머릿들 모인 친구들이 대학교 1학년 때 나는 꿈들이, 30년 후에 그 말이 씨가 되어, 그 꿈 보다 더 멋지게 꿈이 이루어 지는 것을 보았다. 미래에 대한 비전과 목표를 가진 사람의 삶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삶에 큰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리더십의 이해 과정에서는 학생들에게 2030 비전과 미래 계획서(My future Story)를 만들어 보게 한다. 그럼으로서 미래의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 지금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를 생각하게 하고, 자신의 삶을 어떻게 살 것인지를 마음에 그려보고 그 고민을 함께 나눈다. 대학 생활에서 미래에 대한 꿈을 가지고 삶의 계획을 하는 것은 인생을 허비하지 않고 효과적인

삶을 살게 하는 중요한 동기부여가 되는 것이다. 사람의 뇌는 세망활성계(RAS: Reticular Activating System)가 있어 우리에게 들어오는 수많은 정보를 filtering 하는 역할을 하여 자신이 주목 할 것과 무시 할 것으로 나눠 인식한다. 따라서 사람이 목표를 세우면 (중요하다고 인식하면) RAS는 중요한 정보를 더 인식하여 결과적으로 자신의 목표를 효과적으로 이루게 한다.

2011년 12월에 38명 학생들의 2030 비전을 모아 “꿈” Greater Things Yet To Come! 이란 제목으로 책을 만들어 보았다. 벌써 그 중 세명의 학생들로부터 “교수님, 2030 비전 시간에 꿈을 말했는데, 이제 그 꿈으로 가는 길로 들어서고 있습니다” 라는 연락을 받았다. 그런 연락을 받을 땐 꿈의 실현을 보는 기쁨과 보람을 느끼게 된다.

그런데 학생들이 꿈을 정하고도 막상 이를 어떻게 졸업 이후에 자신의 Career와 연결해야 하는지에 대한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어 학생들에게 Career Group Coaching을 하게 되었다. 2012년 2학기부터 현재 3학년 학생으로, Career Coaching을 원하는 8명의 학생들에게 4주간의 Career Group Coaching 과정을 개설하였다. 이 과정의 목표는



1. 자신이 가진 역량과 원하는 비전을 연결하여
2. 현실에서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자신을 살펴보고
3. 남은 대학 생활의 방향을 정하여 준비하도록 도우며
4. 교수와 학생, 참석하는 학생들의 Network을 통하여 서로 격려하며 함께 대학 생활을 보람되게 한다.

4주 동안은 자신의 비전을 살펴보고 자신의 역량과 원하는 Career를 분석하고, 자신의 경력성향을 점검하여 자신이 원하는 일을 보다 현실적으로 생각하게 되었다. 커리어 코칭을 통해 자신이 원하는 방향과 역량을 진단하여 장기 목표를 확인하고 단기 중기 장기 진로 계획을 만든다. 또한 진로 계획을 실현하기 위해 자신의 개발 계획을 만들며, 이를 근거로 개인별로 Career에 대한 코칭을 하는 과정이다.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방향과 자신의 역량을 연결함으로써 관심을 갖는 진로에 대한 보다 현실적인 계획을 세워 남은 대학 생활 동안에 이를 실천하도록 하는 계기를 만든다.

금년 4월에는 학생들의 Career 코칭에 관심을 갖는 교수들이 모여 저녁을 함께 나누며 Career 코칭 모델과 과정을 소개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학생들과 소통 할 수 있는 코칭스킬에 대한 코칭 대화법을 함께 배우는 시간을 가졌다. 코칭은 스스로 깨닫고 잠재력을 발휘하여 자신이 원하는 상태로 인도하는 대화를 통한 리더십 스킬이다. 코칭 대화를 위해서는 말하기 보다는 경청을, 지시하기 보다는 질문을, 문제 보다는 가능성에 초점을 두는 대화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하다. 또한 코칭적 대화를 이끌 수 있는 공감적 경청, 발견 질문, 그리고 인정 칭찬등 코칭 스킬이 필요하다. 스킬은 마음에 생각하는 것을 실제로 현실화 할 수 있는 능력이며 또한 지속적인 연습과 반복으로 숙달되는 것을 말한다. 마음만 있다고 해서 좋은 대화가 이루어 지지는 않는다. 짧은 시간이지만 교수들이 시간을 내어 진지하게 대화 방법을 배우는 모습에서 학생들을 향한 사랑을 읽을 수 있었다. 학생의 가능성을 열어주고 스스로 해결책을 발견하고 이를 실행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코치의 역할을 기대해 본다.



엔지니어들의 경력개발을 위한 기업체 인사실무자의 조언2

효과적인 의사소통

김태성
K-CPMC 인사부 부장



공학을 참찬한 연구개발인력들에 대해 일반인들이 가지고 있는 선입견 가운데 한가지가 바로 융통성이 없고 고집이 세다는 점이다. 사람에 따라서 개인차는 분명히 있었지만 수년간 인사담당으로 근무해 오면서 경험한 바로는 어느 정도 근거 있는 주장이라 생각한다. 특히 한 분야에 오래 종사하고 자신만의 고유 영역을 인정받은 경우일수록 그러한 경향이 좀 더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엔지니어는 일반 사무원과는 달리 주어진 문제에 정답을 내놓아야 하고 대부분의 경우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어찌 보면 이는 당연한 것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같은 결과물을 내더라도 좋은 평가를 받는 사람은 따로 있게 마련이다. 과연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일까? 바로 효과적인 의사소통에서 그 차이가 발생한다.

조직 내에는 많은 이해당사자들이 서로 다른 분야에서 조직의 성장과 발전이라는 하나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각자 주어진 역할들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그들 간의 효과적인 의사소통은 실제 주어진 임무를 완수하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역량이라 여겨지고 있다. 흔히 조직 내에서 정보의 취득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권한의 크기와 비례한다고 한다. 본인이 조직의 주요 의사결정장소에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할수록, 특정 정보로부터 소외되었다는 사실이 고통스럽게 느껴지는 건 어쩌면 당연한지도 모른다.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은 내용뿐만 아니라 수단과 시점도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필요한 정보를 얼마나 적절한 방법으로 적당한 시기에 취득하는가가 조직 내에서 본인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척도가 되고 있다는 점은 그리 놀라운 일이 아니다.

효과적인 의사소통에 있어서도 역지사지(易地思之)의 원칙은 그대로 적용된다.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의 핵심이 무엇인지 먼저 생각하고 난 후, 어떻게 하면 그것을 상대방의 입장에서 쉬우면서도 왜곡되지 않게 이해시킬 수 있을지를 고려한 후에 말하라는 것이다. 누구나 아는 원칙이면서 또 그만큼 잘 안 지켜지는 것이기도 하다. 간단한 업무보고든, 보고서나 기획안에는 분명히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밝혀져야 한다. 늘 상대방이 듣고 싶어하는 얘기만 해줄 수는 없겠지만 상대방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무엇을 원하는지를 이해하고 있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조직 내에서 명심해야 할 것 중에 하나는 내가 현재 어떤 상황에 있는지를 조직(상사)에 항상 알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야만 상사는 내가 현재 얼마나 중요한 일을 하고 있고, 어떤 어려움에 처해 있으며 따라서 언제 자신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지 알게 되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고 혼자 골방에 처박혀서 비밀 프로젝트라도 진행하는 것처럼 스스로 조직과 벽을 쌓는다면, 여러분이 성과물을 자랑하기도 전에 이미 상사로 부터 골치덩어리 취급을 받게 될 것이고 나보다 능력이 부족하다고 여겨졌던 동료가 먼저 승진하는 모습을 지켜보게 될 것이다.



공학교육인증제란?

Engineers, Global Leaders

Global Standard 공학교육, 공학교육인증제는 공학교육의 좋은 길동무입니다.

소개

한국공학교육인증원 (<http://www.abeeek.or.kr>) 으로부터 개발 프로그램 단위로 공학교육 체계가 국제적 수준에 부합함을 인증받는 제도이다. 한국공학교육인증원이 워싱턴 어코드 및 서울 어코드 회원국인 ABEEK 인증 프로그램 졸업자는 워싱턴 어코드 및 서울 어코드 회원국에서 그 학위를 그대로 인정받게 된다.

공학교육인증의 목적

Global Standard에 따른 공학교육 (성과중심 교육평가, 지속적 교육품질 개선, 수요자 중심, 공학도의 전인적 자질 강화)

공학교육인증의 장점

설계능력 : 공학도에게 실제로 필요한, 제품 기획과 설계 능력을 갖추게 함.

전공 지도교수 제도 : 전공 지도교수가 배정되어 수강 지도 및 취업/진학에 대한 상담을 주기적으로 제공

취업 : 공학교육인증을 받게 되면 취업에 유리 (삼성 등의 대기업들은 면접 시 가산점을 부여).

해외진출 : 한국공학교육인증원이 워싱턴 어코드, 서울 어코드의 정회원에게 발급되어 해외(미국)의 기술자격시험 등에 응시할 수 있으며, 해외 이민(호주) 신청 시에도 유리함.

공학인의 전인적 자질 함양 : 졸업 이후 지속적 자기성장, Soft skill (의사소통, 팀워크, 공학윤리, 시사교양 등)을 갖추는 교육 강조.

전공수월성 및 타 분야와의 융합을 위한 기초학문 : 기초과학 및 수학 (MSC, BSM) 과 전문교양의 이수.

운영프로그램

학부	공학인증교육인증제 운영 프로그램	
	컴퓨터공학심화	전자공학심화
전산전자 공학부	학위 : 공학사 전공 : 컴퓨터공학심화	학위 : 공학사 전공 : 전자공학심화

1개 학부 2개 전공으로 공학교육인증 프로그램을 운영함 (<http://csee.handong.edu>).

공학교육인증에 대한 자세한 문의를 한동공학교육혁신센터 류원선연구원(054-260-1528, 뉴턴홀 114호) 또는 김인중 공학교육인증지원부센터장(054-260-1385)으로 하세요.

미국에서 엔지니어로 살기

박신혁

(taithinlight@gmail.com)

한동대학교 00학번

전산전자공학부

현재 EMC,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언젠가 한 번 본사 개발팀에서 엔지니어로 일해보고 싶다.

2009년, 미국 오피스에 출장을 왔을 때 들었던 생각입니다. 잠깐이었지만, 세계 각국 출신의 엔지니어들이 모여서 신기술을 연구하고 신제품을 개발하는 모습이 참 멋있어 보였습니다. 어느덧 시간이 지나서 어렸을 때 회상했던 새로운 경험을 시작하게 되어 참 감사하고 신이 납니다.

안녕하세요, 후배 여러분? 저는 전산전자공학부 00학번 박신혁입니다. 현재는 마동부 Massachusetts 주의 Hopkinton이라는 도시에 소재한 EMC라는 회사에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와 같이, 미국에서 취업하기를 희망하고 준비하고 계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미국에서 엔지니어로 살고 있는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외국인 신분으로 미국에서 취업하여 일을 하려면, 노동이 허용되는 비자가 필요합니다. H-1B 비자의 경우, 발급받기 위해서 경력 또는 대학원 학위가 있으면 유리합니다. 따라서, 해외 취업에는 다양한 경로가 있겠지만, 1년 또는 2년 코스의 석사 과정으로 유학을 하면서 인턴십 기회도 갖고 취업 준비를 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가능성이 높은 방법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면접관들에게는 이력서에서 미국에서의 교육과 미국에서의 경력의 가장 중요하게 비추어지기 때문입니다.

유학을 결심하신 분들께는 몇 가지를 권고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막상 미국에 오게 되면 시간이 많이 부족합니다. 특히 영어 공부할 수 있는 한 많이 해서 오는 것이 좋습니다. 전공 공부와 취업 준비에도 시간이 모자라는데 제한적인 유학기간 동안 영어 공부를 따로 하기에는 돈과 시간이 아까울 수밖에

없습니다. 저 역시 언어의 한계로 많은 기회들을 스쳐 지나 보내고 후회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목표가 뚜렷할수록 선택과 집중이 용이합니다. 다른 말로는, 스스로 유학의 목적을 분명하게 하고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석사 과정의 경우 목표가 아카데미인지 프로페셔널인지에 따라서 시간 계획이 많이 달라질 것입니다. 박사를 염두에 둔 연구가 목적이거나 RA, TA 등 실험실에서 연구 기회를 많이 찾아야 할 것이고, 취업을 염두에 둔 경우라면 보다 실무 능력을 쌓는 것을 중시하고 회사에서의 인턴십 기회를 많이 찾아야 할 테니까요. 둘 다 하겠다는 욕심은 버리고, 목표를 빨리 정할수록 좋습니다. 그리고 취업을 하게 된다면 어떤 분야에서 어떤 직무의 일자리를 원하는지 본인이 제일 잘 알아야 합니다. 집중적으로 준비가 되어있는 사람은 면접관이 금방 알아볼 수 있겠지만, 경제적인 부분 또한 꼼꼼하게 계획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역 특성에 따른 비용 차이도 꽤 나는데, 단순히 학비 뿐만 아니라 생활비가 어느 정도인지 알고 시작하는 것이 좋지요. 예를 들어 보스턴은 대중 교통이 잘 갖추어져 있어서 자동차가 없어도 된다는 장점이 있지만, 상대적으로 집값과 생활비가 비싼 편입니다. 유학은 기간은 짧은 반면 소화해야 할 내용이 많고 비용은 크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계획적으로 전략적으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유학을 시작하게 되면, F-1 비자 소지자의 경우 방학 기간 또는 휴학 기간 중 Curricular Practical Training (CPT)을 통해 전공 관련 분야에서 캠퍼스 밖에서도 Full Time으로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으로는 일해볼 수 있는 기회가 극히 제한적인만큼, CPT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인턴십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인턴십을 했던 회사에서 졸업 후 바로 오퍼를 받는 경우도 많고요. 인턴십이나 정직원이나, 대부분의 IT 회사들은 비슷한 채용 절차를 취하는 것 같습니다. 이력서를 제출해서 서류 심사

를 하고, 보통 두 번에서 세 번 정도의 전화 인터뷰를 진행하고, 마지막으로 직접 면접을 하게 됩니다. 채용 절차는 한국 회사들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지만, 면접 과정에서 제가 느낀 가장 큰 차이점이 있다면, 한국에서의 면접은 피면접자의 다양한 면의 소양을 검증한다면 (국어, 수학, 공간지각능력 등의 필기 고사로부터 시사 상식에 대한 토론 능력, 발표 능력, 인성을 평가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미국에서는 전공 전문 지식을 집중적으로 검증한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개념에 대해서 모를 때까지 파고 들기도 하는가 하면, 화이트보드에 코딩을 시키기도 합니다. 어떤 질문이 나와도 당황하지 않고 대처할 수 있도록 예상 질문들에 대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준비를 시작하는데에는 나중에 나와있는 면접 준비를 위한 문제 은행식의 서적이 도움이 됩니다. 물론 피상적으로 외운 답변과 정말 원리를 잘 알고 하는 답변은 금방 구분이 되겠지만요.

회사에 따라 문화와 분위기가 차이가 나겠지만, 이 곳에서 일하면서 제가 느낀 좋은 점은 엔지니어들이 존중받는 분위기입니다. 직무를 전환하지 않고 마지막까지 엔지니어로 은퇴하시는 분들도 많은 편이고, 경력과 실력이 훌륭하다면 직급에 관계없이 존경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도 미국에서 일하게 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아직까지는 외국인으로서 특별히 큰 차별이나 어려움을 겪은 것은 없습니다. 연구 개발 분야는 워낙 외국인들이 많기도 하고요. 장소는 미국이지만, 여러분이 함께 소통하게 될 사람들은 미국인들이라기보다 세계인들이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더 정확할 것입니다. 당연히 언어와 문화의 문제는 끊임 없이 극복해야 할 부분입니다. 하지만 언어와 문화가 달라도 집금은 통하기 마련이라고 믿습니다.

성실하고 정직하게 일하고, 만나는 사람마다 배려하고 예의를 갖추고, 주어진 환경에서 책임감과 주인 의식을 갖고 일하다 보면, 동료들과 상사들도 여러분 만의 문화와 색깔을 받아들여 주고 인정해 줄 것입니다.

오퍼를 받았을 때의 기쁨과, 첫 출근을 하던 날의 설렘은 아직도 생생히 기억이 납니다. 저 역시 이 곳에 있는 동안 많이 부딪혀보고 열심히 해서 좋은 엔지니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시는 후배 여러분들을 위해 응원하겠습니다.

<참고할 사이트와 추천 서적>

CPT 및 OPT 관련 : <http://www.uscis.gov> 또는 각 학교의 International Student Office 홈페이지

Programming Interviews Exposed by John Mongan

Cracking the Coding Interview by Gayle Laakmann



한동의 후배님들에게...

이승광

한동대학교 05학번
전산전자공학부 졸업생
현재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전문연구요원



안녕하세요. 저는 한동대학교 전산전자 공학부 졸업생 이승광이라고 합니다. 2009년에 한동대학교를 졸업하고 포항공대 대학원 석사과정을 마친 후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에 전문연구요원으로 입사한지 2년 반 정도 되었습니다. 그동안 학부 시절부터 연구원 생활을 하기까지 거치는 저의 작은 경험에 비슷한 처지에 있는 후배님들에게 도움이 될까 하여 소박한 전언을 남기고자 합니다.

ETRI와 전문연구요원은 정보통신 기술분야의 육성을 위하여 국가가 설립한 비영리 정부출연연구기관 중 하나입니다. 약 2500여명의 직원들이 있고 그 중 R&D 연구인력은 2000여명 정도입니다. 평균연령은 39세 정도로 알려져 있고 거의 대부분 석사 이상의 학력을 소지하고 있습니다. 연구 분야가 다양하여 간략하게 추릴 수 없으나 전전 졸업생의 경우 대학원 전공에 따라 소프트웨어부문이나 로봇, 부품 소재 부문 등으로 소속되며 주로 전문연구요원 신분으로 입사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전문연구요원으로 일하는 3년간은 군복무를 대체하게 됩니다.

방향과 고민의 끝 공대에 재학중인 형제들은 군대문제로 많은 고민을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 또한 그랬으니까요. 물론 신중하게 결정할 문제이지만 그 신중함이 “고뇌”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떤 경로를 선택하더라도 그만의 장점이 있을 테니까요. 저는 실제로 대학교 2학년 시절, 학업이 뜻대로 되지 않아 자퇴, 중퇴, 공무원 시험 등... 학교를 그만 둘 수 있는 모든 옵션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다가 군대를 가기로 결심을 했고, 모든 서류를 구비하고 마지막으로 인사를 하며 돌아다녔습니다. 그리고 당시 미국에 계셨던 이 강 교수님께도 연락을 드렸죠. 교수님께서 제가 겪고 있는 일들을 잘 이해할 수 있는 용기를 주셨습니다. 아직도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는 말씀...

You are qualified

저도 사실은 그런 이야기를 해 줄 사람을 찾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저는 모든 계획을 취소하고 다시 학업에 전념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기초부터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작은 목표를 하나씩 성취하다 보니 제가 원하는 바를 이룰 수 있게 되었습니다. 졸업 후에는 대학원에 진학을 하게 되었고, ETRI에 정규직 연구원으로 채용되었습니다.

수학 좀 열심히 저는 학부시절 수학을 등한시하여 현재 고난 중에 있습니다. 연구기관에 소속되어 연구를 하리게 된다면 어떠한 주제든지 상관없이 깊이 있는 연구로 들어가는 첫 번째 문도 수학, 마지막 문도 수학입니다. 저는 그 수학의 문을 제대로 열지 못해 창문으로 왔다갔다하고 있죠. 전산의 기본은 선형대수와 이산수학, 확률은 필수, 고급 미적분, 여유가 된다면 대수학까지! 수학은 할 수 있는 만큼 하시길 바랍니다. 수학을 잘 하는 사람은 다른 분야로 두루 여행을 다닐 수 있으나 전산만 공부하면 버스 노선이 짧습니다.

영어는 더 열심히 여러분 원서 잘 보고 계신가요? PPT유인물은 보충자료로 사용하고 원서를 보세요~! 꼭 보세요~ 어떤 동사를 썼는지, 조사는 어떻게 썼는지, 같은 말을 여러번이 한다면 어떻게 썼을지 한 번 비교해 보세요. 가끔 대학원이나 연구원 중에 영어를 잘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자신이 가진 생각을 논리 정연하게 표현할 수 없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같은 말을 해도 어떤 사람은 모든 사람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말로 쓰고 어떤 사람은 영어인지 암호인지 모를 정도로 어렵게 쓴다는 것입니다. 분명 문법만 안다고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좋은 연구 결과는 품위 있는 글로 표현할 때 완성됩니다.

You are qualified



학교생활 저는 대학교 생활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추억을 고르라고 하면 사실 막막합니다. 그만큼 성적이라는 스트레스를 뿌리치지 못했죠. 지나고 나니 꼭 그럴 필요는 없었습니다. 제가 좀 더 여유를 즐길 줄 알았어도 평점 소수점에는 큰 변화가 없었을 겁니다. 생각 없이 즐기는 대학 생활을 권하지는 않지만 성적에 구속되지는 말아주세요. 집착과 열의를 잘 구별하는 대학 생활을 하시길 바랍니다.

대학원 선택 저 뿐만 아니라 제 친구들도 대학원 준비를 할 때 다른 것은 잘 안 봤습니다. 학교의 인지도, 오직 그것뿐. 물론 당연하고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학교 이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떤 연구실에 들어가서 어떤 사람들을 만나는가입니다. 각 대학원마다 연구실 소개가 되어있죠? 현재 진행 중인 연구가 무엇인지 소개가 되어있고, 연구실에서 나온 논문들이 있습니다. 적어도 논문 제목들은 한 번 살펴보고 논문 초록이라도 가볍게 훑어보면서 연구실 분위기를 파악해 보세요. 연구실 실적이냐 내용보다 어떤 교수님을 만나는가가 참 중요한데 그런 부분은 해당 학교에 재학중인 친구나 포털 사이트의 카페 등을 이용해서도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평판이 좋지 않은 교수님의 연구실에는 자대 출신이 별로 없습니다.

대학원에 진학할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저학년 때부터 평점이 투수 방어율처럼 낮아지는 현상을 방지해야 합니다.

대학원 마다 입시 면접을 위해 필요한 과목들이 있는데 학교에서 배우지 못한 과목이 있는 경우도 종종 있으므로 개인적으로 공부를 해두면 유익합니다.

맺음말: 언젠가 대학생활 어떻게 했어? 라고 물어보는 사람이 있다면, 그래도 할 만큼은 했어... 라고 주저 없이 말 할 수 있는 사랑하는 한동인들이 되시길 기도할게요. You are qualified.

Curriculum exchange를 위한 Taylor University 방문기

이경환
한동대학교 전산전자공학부 08



20시간여의 기차를 타고 Chicago에 도착하는 순간, 코 끝이 찡하듯 시원 바람이 우리를 맞아주었다. Chicago의 Union Station에서 전산전자공학부의 성공영 교수님께서 우리(07 박신홍, 08 이경환)를 반갑게 맞아주셨다. 우리는 실 팀 없이 바로 Indiana주로 향했다. 우리의 목적지는 자매대학인 Taylor University로, 자매대학과의 curriculum exchange의 일환으로 한동대학교의 Capstone주제를 발표하는 것이 목표였다. Taylor University로 가는 길 내내 끝없는 벌판이 우리 옆을 지나갔다. 5시간 정도를 달리니 날이 어두워졌다. 여전히 벌판은 끝이 없었다. 우리는 Taylor University에서 약 1시간 정도 떨어진 Kokomo City에 숙소를 잡고 휴식을 청하였다.

다음날 처음 방문하는 외국 대학에 대한 기대감을 안고 Taylor University로 들어섰다. 채플이 진행되고 있는지, 학교 중앙의 거대한 종이 울리고 있었다. 우리는 인사담당자를 만나 인사를 하고, 물리 및 공학부가 있는 Euler Science Complex로 안내를 받았다. 일차형 복도인 한동대학교의 공대와는 달리 이 곳은 원형계단을 중심으로 강의실 및 오피스가 동글게 배치되어 있었다. 이 같은 구조는 학생 및 교수들 사이의 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물리 및 공학부(Physics and Engineering Department)의 학과장인 Ken Kiers 교수가 우리를 맞이하며 설명해주었다. 우리는 Computer Science & Engineering 교수들과 반갑게 인사를 하고, 잠시 건물을 둘러보았다. 안내는 Taylor University에 교환학생으로 재학 중인 전산전자공학부의 이승민 학우가 해주었다. 신식건물이라 내부 인테리어도 깔끔하였다. 한동대학교와 눈에 띄게 다른 점은 학생 대 교수의 비율이 우리학교보다 훨씬 적어 자유로운 수업분위기를 내고 있다는 점이었다. 또한 벽에 걸려있는 Capstone 소개를 보니 딱딱하고 학술적인 내용을 벗어나서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예를 들어 기타 치는 로봇이나 3d graphics를 이용한 FPS 게임 구현 등의 다양한 주제를 다루고 있었다.

점심시간이 되어 교수들과 함께 구내 식당으로 향했다. 식당은 먹고 싶은 메뉴를 점시에 골라 담아 계산하는 생소한 방식이었다. 식사 중에 교수들과 함께 기술의 발전(특히 인공지능)을 바라보는 관점에 대하여 토론하였다. 이 토론은 점시가 빈 후에도 한참 동안 계속되었다. 그리고스도인으로서의 관점과 공학인으로서의 관점이 주로 갈등을 이루는 상황이었다. 교수와 학생 사이에 이런 철학적인 내용들이 오고

가는 것이 매우 흥미로운 일이 아닐 수 없었다.

약간의 발표 준비 후에, 우리는 10명 정도의 학생과 10명 정도의 교수가 앉아있는 강의실로 초대를 받았다. 수많은 외국인들을 앞에 두고, 학교를 대표하여 발표한다는 부담감이 있었지만, 이내 침착함을 유지하며 발표를 시작하였다. 먼저 박신홍 학우의 Software Engineering과목에서 만든 '밥 약속 집기 어플'을 공개하였다. 비록 문화적 차이가 있어서 어플의 목적을 설명하기 힘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설계 목표와 과정을 보여주며 어플리케이션을 설명하였다. 그리고 이어서 Capstone주제인 '무선통신과 GPS를 이용한 위치추적 어플리케이션'을 발표하였다. 이를 통해 High Balloon Project에 응용할 수 있음을 보여주며 발표를 끝마쳤다. 예상대로 많은 질문들이 들어왔다. 첫 번째 질문은 '이를 상용화 시킬 계획이 있는가'였다. 우리는 한동대학교의 GEA학부에 대해 간단히 설명하면서 충분히 참여로 발전시킬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두 번째 질문은 '이를 통하여 얻고자 함은 무엇인가'였다. 한동대학교의 교육이념인 '배워서 남 주자'를 인용하여 우리가 개발한 디바이스와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학생복지를 위해 실천할 것을 말하자, 고개를 끄덕이며 수긍하였다. 세 번째는 질문이 아닌 조언이었다. 우리는 웹 제너레이터를 이용한 배터리 충전방식을 선택하였지만, 솔라셀을 이용한 충전방식이 더 효율적이라는 분석이었다. 우리는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 한 부분에 대한 조언에 감사를 표하고 적극 수용하기로 하였다.

발표를 무사히 끝내고, 우리는 약소한 선물을 교환하며 다음에 다시 볼 것을 약속하였다. 한동대학교의 국제화와 더욱 발전된 교육과정을 위한 curriculum exchange가 우리의 발표를 통하여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것을 바란다.

내가 디자인하는 미래 그리고 오늘의 실천

임재광
한동대학교 생명과학부 07학번



2011년 가을학기 김정원교수님의 이공계리더십 수업을 통해 효과적인 삶에 대해서 배우고 이를 실천하고자 노력하던 중, 2013년 봄학기 Career coaching 세션을 여셔서 다시 한번 삶의 배움을 얻을 수 있었다.

한달 동안 화요일 4교시 점심시간을 활용하여 진행되었는데 다양한 전공의 학우들이 모여 진로에 대한 고민과 서로의 비전을 나누고 자신의 강점들을 확인하며 유익한 공감시간을 보내었다. 항상 진로에 대해 고민은 하지만 어떻게 준비할 수 있을지 어렵스럽게 생각만하였는데 교수님의 지도를 통해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할 수 있었다. 인생이 항상 계획한대로 살아갈 수는 없겠지만 이번 코칭세션을 통해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걱정보다는 사회에서의 삶에 대해 먼저 듣고 나의 미래를 그려볼음으로 한번 제대로 살아보고자 하는 기대와 자신감이 생기는 것 같다.

한국리더십센터의 코치이신 교수님께서 각자 작성한 3단계 커리어플랜에 맞추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주셔서 그에 따른 세부계획들을 세울 수 있었다. 취업컨설팅강사들의 전략들은 제3자의 입장에서 기업을 분석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수준이지만 수많은 사원을 선발하셨을 교수님과 교수의 모의면접을 통해 면접관들의 시각에서의 필요한 정보와 교정을 받을 수 있었다. 또한 경력지향성평가를 통해 각자의 성향을 바탕으로 적합한 직무를 모색하였던 활동은 내가 정말 즐겨하는 일이 무엇인지 새삼 깨닫게 해주는 계기가 되었다.

사회에서는 이러한 컨설팅을 받으려면 큰 금액을 지불하여야 할 것인데 사회로의 첫 발걸음을 내딛기 전 공학교육혁신센터에서 제공하는 커리어코칭을 받을 수 있어 막연했던 미래가 명확한 오늘의 실천으로 다가오게 된 것 같다. 진로를 고민하는 이들에게 대학생으로서 누릴 수 있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권한다.



창의충전소, 다국적 프로젝트 팀

이요한
한동대학교 전산전자공학부 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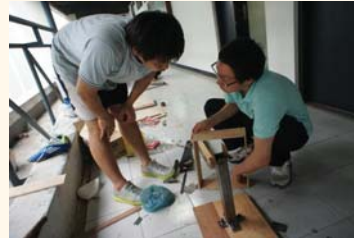
2012년 9월쯤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창의충전소 공학봉사'를 처음 알게 되었다. 한창 나의 진로에 대해서 고민하던 시기에 인도네시아 공학봉사단원 모집 공지를 보면서 나의 진로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조금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 신청을 하게 되었고 부산대 면접을 합격하여 봉사단원으로 참여하게 되었다.

봉사는 봉사인데 공학봉사는 뭐까? 내가 가서 뭘 하는 걸까? 어떤 걸 할 수 있을까 막연하고 궁금한 것 투성이었다. 부산대에서 5차에 걸친 교육을 받으면서 창의충전소에서 하는 인도네시아 공학봉사가 어떤 것인지 그곳에서 무엇을 하게 되는지에 대해 배우면서 인도네시아에서 하게 될 일에 대해서 기대하게 되었다. 처음 발을 디디는 인도네시아에서의 생활은 어떨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친구들은 어떤 모습일지,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을지, 또 그 친구들과 어떤 주제로 커뮤니케이션 할지 설레는 마음으로 공학봉사를 준비했다.

2013년 1월 25일 아침 김해공항을 통해 홍콩으로 약 5시간, 대기 4시간, 수라바야까지 다시 5시간 걸려 인도네시아에 도착하였다. 공항을 나서자 인도네시아의 덥고 습한 기운이 확 느껴지면서 인도네시아에 왔다는 것을 몸소 체감하였다. 우리를 마중 나온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친구들과의 어색한 첫 만남(?)을 가지고 함께 대화를 하면서 3시간을 달려 UTC에 도착했다. 그곳에서 세 나라의 대학생들이 모여 아이스브레이크도 하고 한국학생 2명, 인도네시아학생 2명, 말레이시아학생 1명씩 팀을 이루게 되었다. 우리는 Sidlots(다섯 일간지)라는 팀으로 모이게 되었다. 이 후 수라바야 시내의 EEPIS 캠퍼스에서 본격적인 일정의 시작되었다. 먼저 workshop을 통해 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에서 각자 학생들이 했던 과제에 대한 발표가 있었다.

발표회를 마친 후, 실질적인 현지 프로젝트가 시작되었다. 우리 프로젝트의 가장 기본 단계인 현지 문제점을 찾기 위해 현지 주민들을 인터뷰하면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찾아다녔다. 약 다섯 가지 문제들을 찾았고 긴급성, 지속성 등 기준에 따라 그 중 한 가지 문제를 선정했다. 그 마을에서는 한 달에 한번 재활용 캔들을 모으는데 그것을 재활용하기 위해 납작하게 만드는 작업을 여자서너 명이 발과 망치를 이용해 작업하고 있었는데, 작업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안정성의 문제가 있었다. 각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아이디어들을 내고 그 중에 여러 기준에 따라 안착기를 만들자는 아이디어를 선정하였다. 이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디자인을 했고 필요한 물품 목록 작성하여 제작을 준비 했다. 나는 전자공학을 전공해서 회로를 만들고 시뮬레이션 하는 프로그램을 주로 다뤘는데 다른 학생들이 지금 당장 유용한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디자인하는데 비해 나는 그런 툴들을 잘 알지 못해 아쉬웠고 공대생으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다룰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학문적인 공부에만 치중하고 유용한 툴들을 잘 사용하지 않고 관심 가지지 않아서 충분한 도움이 되는 것 같아 부끄러웠다.

제작에 앞서 물품을 구매하기 위해 도심으로 가서 팀 별로 미션을 수행했다. 자유미션으로는 큰 쇼핑몰 정문 앞 공간에서 조원들과 물에서 나오는 강남스타일 노래에 맞춰 춤을 추기도 했다. 인도네시아 수라바야에 와서 EEPIS와 숙소 마을에만 있다가 도심으로 나와 시청 등 주요 시설물들과 유적지를 구경하면서 프로젝트에 대한 생각에서 잠시 벗어나 인도네시아 문화를 직접 체험할 수 있어 좋은 시간이었다. 돌아와 재료들을 마쳐 구매하고 다음날 제품을 만들기 위해 역할 분배도 하고 타임테이블도 짜서 준비를 해두었다.



다음날 구매한 재료들을 가지고 설계에 맞춰 제품을 만들기 시작했다. 중간에 교수님들께 피드백 받고 피드백을 반영해서 제품을 수정하고 동시에 제품설명서도 만들었다. 각 자 역할을 맡아 일을 하였는데 공구는 인도네시아 학생들이 잘 다루어서 인도네시아 학생들이 주로 공구를 다루고 사포질하고 보조하고 톱질하는 등의 일들을 했다

인도네시아에 온 여덟째 날이 프로젝트의 마지막 날이었는데 아침에는 전시회를 열어 EEPIS 학생들과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전시했다. 그리고 오후에 제품 사진을 가지고 주민들에게 가서 설치여부를 묻고 허락을 받아서 제품을 들고 와 직접 설치했다. 부족한 점이 많지만 지난 약 5일간 문제를 찾고 아이디어를 내고 설계하여 만든 우리 제품을 주민들이 직접 사용하는 모습을 보니 뿌듯했다.

2012년도 1월, 겨울에 GEM 프로젝트로 몽골에서 자브항도의 관광 활성화 위해 홈페이지와 브로슈어를 만들고, 교육하는 프로젝트를 한 적은 있었는데 이번에는 팀 자체가 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학생들도 이루어져 있었고 서로 다른 문화와 언어를 가지고 있어 굉장히 새롭고 도전적인 경험이었다. 잘 하지 못하는 영어로 커뮤니케이션 하려고 하니 답답하기도 했지만 한국사람들끼리는 몇 마디면 충분히 전달되는 말을 길게 말하고 있고 영어뿐만 아니라 손짓이나 눈짓 등 비언어적 표현까지 사용하여 의사 소통하면서 앞으로 더 많이 준비를 해야겠구나 하고 느꼈다. 또한 내게 익숙한 방법이 또 다른 문화권에 있는 학생들에게

는 불편할 수 있고 생각이나 방법이 다르다는 걸 많이 느꼈고 어떻게 상대를 존중하면서 팀으로 함께 원하는 바를 이뤄나가는 할 지에 대해 많이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 또 그들의 생활가운데 좋은 것들을, 예를 들면 배려나 절제, 감사 등을 찾을 수 있었고 그것들이 몸에 배어있는 것들을 보고 배워야겠다고 느낄 수 있었다. 앞으로의 시대가 어떤 문화권의 어떤 사람일랑 함께 일할 지 모르는 시대인 만큼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그 역량을 조금은 연습하고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느꼈다. 또한 공학적인 부분에서도 공학을 통해서 사람들의 삶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구나 하는 부분을 느꼈고 내가 공학도로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었다.

처음 이곳에 오기 전에 생각했던 내 길에 대해서는 확실한 방향을 아직도 찾지는 못했다. 하지만 이번 경험을 통해 앞으로 내 길에 대해 더 구체적이고 실제적으로 생각할 수는 계기가 되었다. 우선은 내가 전공하고 있는 부분을 열심히 공부하고 언어같이 앞으로의 시대에 필요한 소양들을 미리 준비해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다. 학생으로 쉽게 접하지 못할 정말 좋은 경험이었고 주변의 친구들, 선배들에게 참여하기를 꼭 추천해주고 싶다.



컴퓨터 공학과 적정 기술

박은비
한동대학교 전산전자공학부 10



“소외된 90%를 위한 창의적 공학설계”

한동대학교에 입학한 시점부터 지금까지 내 삶을 뒤쫓고 있는 한 문장이다. 입학하자마자 컴퓨터공학심화전공을 선택하였고 이 전공으로 소외된 사람들을 돕는 방법을 찾고 싶었다. 기계제 어공학, 공간시스템환경공학 등을 전공하면 그들을 위해 집을 지어주거나,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물품을 만들어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컴퓨터 공학은 왠지 소외된 사람들보다는 부유한 사람들을 위한 전공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소외된 사람들을 도우며 살고 싶다는 비전과는 맞지 않는 전공이라는 생각에 전공을 진지하게 고민하기도 했다. 그러던 중, 성금영 교수님께서 인도 비하르에 GIS 시스템을 개발해 줄 학생을 찾으셨고 전공으로 그들을 도울 수 있는 기회라는 생각이 들어서 GIS system 개발팀에 합류하게 되었다.

‘Joshua team’ 우리 프로젝트 팀의 이름이다. GIS라는 분야에 대해 아는 팀원이 단 한 명도 없이 이 프로젝트를 시작하면서 여호수아처럼 강하고 담대하게 나가자는 뜻으로 이 이름을 선택했는데, 지금까지 약 1년 반 동안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이런 마음이 없었다면 지금까지 유지되지 못했을 것 같다. GIS를 공부하면서 이 분야 자체가 컴퓨터 공학이 아닌 공간시스템환경공학의 분야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의 혼란, 아무리 공부를 해보아도 우울 안 개구리 같은 느낌, 그래도 할 수 있다는 생각만으로 2012년 여름, 직접 인도 비하르 낙타섬을 찾아갔다. 그러나 현지 상황은 우리를 더 절망하게 했다. 그나마도 지도 데이터가 있어야 이 시스템을 개발할 수 있는데 그조차 없는 상황인데, GIS같은 고급 기술이 아니라 현장 생활을 개선시킬 수 있는 기술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이다. 매일 밤 팀원들과 함께 모여 우리 팀의 진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하나의 일치되는 의견은, 우리가 지금까지 해 온 일들이 무의미해지더라도, 낙타섬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 할 수 있는 실제적인 일을 찾자는 것이었다. 그리고 당장 눈 앞에 있는 나무를 보는 것 보다 숲을 보고 미래를 내다보고 프로젝트를 진행하기로 했다.

그래서 프로젝트의 방향을 “3D GIS system”을 만들어 현지 실태를 시각적으로 한눈에 알 수 있도록 하여 지역 개발 담당자가 보다 쉽게 지역 개발을 할 수 있고, 좀 더 나이가 많은 사람들에게 인도 비하르 낙타섬에 살고 있는 소외된 사람들을 알리는 것으로 수정했다. 3D 프로그래밍과 MFC, GIS 이 세가지를 결합하는 것이 쉽지는 않았다. 이 또한 처음부터 다시 배워야 하는 부분들이었고 초보자들이 도전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많았다. 그래서 포기하고 싶을 때도 많았고 팀원들도 지쳐서 이런 저런 문제가 생기기도 했다. 그래도 우여곡절 끝에 지금까지 개발을 해왔고, 소외된 90%를 위한 창의설계 경진대회에도 참가하게 되었다.

2013년 5월 24일, 서울 한양대학교에서 경진대회가 열려서 포항에 있던 우리는 가는 길부터 험난했다. 수업 때문에 당일 아침 일찍 출발하는 사람도 있고 그 전날 카풀해서 가는 사람도 있고 팀원들이 뿔뿔이 흩어져서 겨우겨우 대회장에 도착했다. 아침 11시부터 우리가 개발한 시스템 데모 영상과 판넬을 전시하고 발표 자료도 다시 점검하면서 분주하게 대회를 준비했다. 다들 지금까지의 노력이 이 대회에서도 잘 보여지기를 바라는 마음이었다. 프로젝트에 대해 궁금해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열심히 설명도 하고, 어떻게 하면 이 분야를 잘 모르는 사람에게는 좀 더 쉽게 설명할 수 있을지 고민도 했다. 발표는 가장 마지막 순서였는데, 발표가 끝난 후에 심사위원



교수님께서 우리 프로젝트가 잘 이해되지 않는다는 말씀을 하셔서 심장이 철렁 내려 앉기도 했다. 애써 우리의 기술을 설명하고 이 기술이 어떤 부분에서 적정기술이며, 직접적인 적정기술이 아닌 간접적인 적정기술에 대한 설명도 덧붙였다. 그런데 다른 분들도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우리 프로젝트를 바라보셔서 마음이 어려웠고 수상을 하는 것도 기대할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사실 다른 팀들의 발표와 판넬 전시를 보면서 특히 수질 분야가 인상적으로 다가왔다. 우리 분야는 적정기술 분야에서도 매우 생소한 분야인데, 수질 분야는 적정기술에서도 하나의 큰 영역을 차지하는 분야였고, 수질과 관련된 세션이 아예 한 세션이 열려서 10개 이상의 팀이 수질이라는 한 분야에 대해 많은 프로젝트를 진행해 온 것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부럽기도 하고, 역시 간접적인 기술보다는 좀 더 실제적으로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적정기술을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다. 또한

우리 팀도 지금까지 열심히 프로젝트를 진행해왔지만 다른 팀들도 이에 못지 않게, 오히려 더 열정적으로 많은 준비를 해온 것을 보고 반성을 하기도 했다.

그리고 마지막 순서, 시상식이 시작되었다. 다른 팀들을 보면서 수상을 기대하지 않고 있다가 우리 팀이 동상이라는 발표를 듣고 만감이 교차했다. 더 나은 팀이 많은데 우리가 그들을 대신해서 받은 상이라는 생각도 들었고, 지금까지 수고한 팀원들에게 위로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위안도 되었다. 아직까지 소외된 사람들을 직접 돕는 것이 아닌, 간접적인 우리의 개발에 대하여 의문을 품는 사람들이 많지만, 이번 경진대회를 통해서 좀 더 우리의 생각을 다지는 기회가 되었고, 앞으로도 소외된 사람들을 위해 우리의 전공을 살리는 일을 계속 발전시켜 나가고 싶다.



학부 MT

일시 2013. 03. 15. (금)

장소: 뉴턴홀(구 2공대) 313호

참가인원 85명

2013학년도 봄학기 학부 MT는 많은 학부생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학교에서 열렸다. 맛있는 저녁식사를 하며 담소를 나누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개강예배로 이번 학기 가져야 할 말씀을 마음에 새겼다. 교수님들의 말씀과 새로 들어온 2학년 신입 학부생들의 자기소개, 단체사진 촬영으로 학부 구성원들 간의 단합을 다지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 전체 일정 마무리 후 간단한 레크레이션은 또 다른 재미를 선사해주었다.



학부 답사

일시 2013. 5. 17(금)

장소 서울 일대

참가인원 25명

보고 느끼는 경험이 중요한 학부의 특성을 살려 오랜만에 학부 차원에서 서울로 답사를 떠났다. 이번엔 새로 복원된 송래문, 서울 시청 신청사, 광화문, 북촌, 인사동, 공간사옥, 이대 EOC, 서울 소재 15개 대학 연합 건축전 등 서울 곳곳을 누비며 직접 몸으로 체험해보는 귀한 시간을 가졌다. 이 답사를 통해 본인의 학업 공부에 귀한 경험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졸업생 특강

일시 2013. 4. 25(목)

장소 효암빌관 2층

참가인원 49명

4월 25일 목요일 오후 2시 30분부터 공간환경시스템공학부를 졸업하신 선배님들께서 방문하여 효암빌관 2층에서 선배특강을 가졌다. 특별히 이번에는 95학번 서덕수, 98학번 김규철 선배께서 공사생들을 위해 Reading the city, Writing the city와 International Business Development를 주제 삼아 본인들이 경험하신 것을 바탕으로 값진 강의를 해주셨다. 각자의 자리에서 좋은 성과를 거두고 계시는 선배님들을 보고 재학생들은 전공에 대한 확신을 가지는 시간이 되었다.



스승의 날 사은회

일시 2013. 5. 15(수)

장소 뉴턴홀 212호

참가인원 40명

'스승의 은혜는 하늘같이 우리려 불수록 높아만 지네' 항상 학부를 위해 기도하시고 노력하시는 교수님들께 학생들이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사은회가 행사가 열렸다. 평소 속으로만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던 학생들이 자리에 나와 스승의 은혜를 부르며 교수님들께 감사하는 마음을 전하는 귀한 시간이었다. 작게나마 학부생들의 사진이 담긴 전자액자를 선물로 준비하여 증정하였다.



학부설명회

일시 2013. 5. 22(수)

장소 뉴턴홀 212호

GLS 주관으로 5월 22일 오후 7시, 8시 두 차례 걸쳐 학부설명회가 열렸다. 네 분의 교수님께서 학부를 소개해 주셨고, 평소 공간환경시스템 공학부에 관심이 있거나 궁금증이 있었던 1학년 학우들의 많은 참여로 학부를 알아가는 알찬 설명회가 되었다. 이번엔 참여한 GLS 학우들이 내년에 꿈과 비전을 품고 공대에서 함께 공부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학부체육대회

일시 5월 1~2주

학부연합회 주관으로 열린 학부체육대회가 5월 1일 수요일에 개최했다. 12개 학부가 참가한 학부체육대회가 우리 공시는 남자 축구, 남자 농구, 여자 야구, 여자 농구에 출전하였다. 비록 좋은 결과는 얻지 못했지만 학부생들이 한 팀을 이뤄 땀 흘리며 운동하는 가운데 친분도 쌓고 함께 즐거운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만원의 사랑 프로젝트

2011년 공시 동문회에서 시작한 만원의 사랑이 이번 학기에도 진행되었다. 졸업한 선배들이 매달 만원씩 모아 학업을 위한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모임이다. 이번에는 총 100만원을 3팀에게 지원하여 원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주었다.

친환경건축도시학회 에코한울

박수민 010-770-3281



친환경건축도시학회 에코한울은 "사람과 환경에게 이로운 공간을 창조하는 것"을 목표로 친환경 저에너지 저탄소 건축, 도시를 공부합니다. 현대 건축, 도시계의 방향은 친환경, 에너지 절감형 건축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이제 친환경적인 요소는 건축, 도시에 있어 선택이 아닌 필수요소로 자리잡았습니다. 에코한울은 친환경 건축도시를 배우는 학회로 그와 관련된 교육, 스터디, 프로젝트 등을 진행합니다. 이론 스터디를 통해 공부한 지식을 실제적인 프로젝트에 적용해보고 공모전에 참여하여 좋은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코한울은 한동에서 친환경 건축도시를 배울 수 있는 가장 좋은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에코한울과 함께 활동하려면, 예비 공간환경시스템공학부 학생이어야 하며, 2학기 이상 활동 가능 자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람과 환경에게 이로운 공간을 창조하는 학회, 에코한울입니다."

한동건축학회 HIA

지경은 010-5883-5530



건축이라는 방대하고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학문을 공부하고, 고민하고, 연구하고, 준비하며, 도전하기 위해 형성되었으며, 건축의 다양한 접근 가능성을 바탕으로 학문적 배움과 나눔을 목표로 건축에 대한 서로의 의견은 물론, FUNDAMENTAL-KNOWLEDGE, CREATIVITY, IDEAS, CONCEPT 등을 공유하는 NETWORK를 형성하여 나아가 미래를 준비하는 학회입니다.

* 한동건축학회 HIA에서는 향후 공간환경시스템공학부에서 공부하게 될 신입생들에게 1학년부터 학회에 지원 및 활동할 것을 권장합니다.

아쿠아젠

이인지 010-9918-0723



아쿠아젠은 2003년 설립되어 토목공학의 심층적인 연구를 희망하는 공간환경시스템공학부 학생들이 모여 연구하는 학회입니다.

공간환경시스템공학부 안경모 교수님의 지도 아래 토목공학에 대한 전반적인 연구를 비롯하여 주로 해안을 중심으로 한 자료 수집 및 분석,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속적인 스터디 모임을 통해 토목공학 분야의 이해도를 높이며 함께 실제로 프로젝트를 수행하여 배운 지식을 활용하는 기회를 갖고자 하고 있습니다.

Urban Future 21

장세희 010-4703-3103



도시는 '사람들의 삶을 담는 그릇'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Urban Future 21은 '도시'를 주제로 강의 시간에 배운 내용을 토대로 더 나아가 도시의 역사에서부터 디자인, 조경, 개발·도시계획을 위한 도시 설계, 현대 도시 이론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주제를 매 학기 선정하여 스터디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율적, 자발적으로 함께 전공에 대해 공부하고 고민하며 VISION들을 나눌 수 있는 학부 선배배 간에 Network를 형성하고 나아가 훗날 도시를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한 준비를 하는 학회입니다.

* Urban Future 21에서는 학부, 학년에 상관없이 도시에 대해 공부하고 싶은 모든 학우들에게 열려 있습니다.

졸업식 행사 <낭만졸업식>

일자 2013. 2. 22(금)

장소 한동대학교 뉴턴홀 213호

참여인원 졸업생 30명, 재학생 40명

2월 22일 기계제어공학부의 '낭만 졸업식'이 있었다. 기계제어공학부를 졸업하는 학생들과 교수님들, 그리고 재학생들이 마지막으로 모인 그 자리는 서로 반가우면서도 헤어짐을 아쉬워하는 자리였다. 그 동안 서로 전하고픈 말과 노래를 영상편지에 담아 때론 재미, 때론 감동을 주면서 교수님과 학생과의 졸업을 축하하는 말들이 전해졌다. 선배님들의 졸업이 기쁘면서도 아쉬운 재학생들은 목소리를 한데 모아 졸업 축하노래를 부르고 졸업생들은 교수님들께 감사의 마음을 담아 감사의 노래를 부르며 낭만 졸업식이 사랑 가운데 무사히 마쳤다.



학부 홈커밍 행사 <낭만홈커밍>

일자 2013. 5. 17(금)

장소 졸업생 특강 : 뉴턴홀 313호, 사은회 : 채플빌관 3층

참여인원 120명(재학생 80명, 졸업생 40명)

기계제어공학부의 졸업생 선배님들이 재학생들의 멘토가 되어 학교에 오시는 '낭만 홈커밍' 행사를 가졌다. 바쁜 와중에서도 학교까지 오셔서 재학생들의 진로 및 학교 생활 또는 사회 생활에 대한 고민과 궁금증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며 교제하는 시간을 가졌다. 해외 유학을 준비하는 분과 창업을 하신 분들의 독특한 경험 후배들에게 이야기해 주며 도전 정신과 폭넓은 진로를 소개하였다.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며 즐거운 저녁식사를 마치고 교수님들께 그 동안 감사했던 마음을 전하는 사은회와 함께 이번 연도에 있을 김영인 교수님의 퇴임을 아쉬워하는 자리를 가지며 서로 간의 정을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



비전캠프

일자 2013. 3. 15(금)

장소 한동대학교 학관 101호

참여인원 약 200여명

2013년도 봄학기가 시작하는 주에 기계제어공학부 학생들 대부분이 모여 개강총회를 하였다. 참석하신 교수님들께서는 학생들이 가져야 할 마음가짐부터, 한 학기뿐만 아니라 기계제어공학부 학생으로서 우리가 지니고 있어야 할 정신에 대해서 진심 어린 이야기를 해주셨다. 즐거운 식사 후 예배와 찬양을 시작으로 이번 학기에 있을 행사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하고 함께 사용하는 공공 장소와 기물에 대한 주의 사항을 공지하여 서로 배려하며 지내는 학기가 되도록 시간을 가졌다. 또한 서로 도우며 공부하는 기계제어공학부 학생이 되길 바라며 이번 학기에 있을 학부 스터디 그룹에 대해 공지했다.



캡스톤 발표회

일자 2013. 6. 24(월)

열 대여섯 조들이 각각 한 학기 동안 자신들이 연구한 전공에 관련한 주제를 가지고 발표를 할 예정이다. 자신들이 연구한 내용을 한 장으로 요약한 포스터를 전시하며, 전시된 포스트는 자유롭게 찾아와서 볼 수 있고 내용에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들은 포스터 옆에 대기 중인 연구 조원들에게 질문이 가능하다. 캡스톤 발표회를 통해 연구에 참여했던 사람들은 자신들이 연구한 내용에 대해 깊게 생각하고 준비하는 기회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기계제어공학부의 전공을 통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전공에 대한 흥미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다.

2013년 3월부터 기계제어공학부에 이은주 조교선생님이 새로 오셨습니다 ♥

아두이노

홍다현 010-4131-8015



아두이노는 학부과정에서 습득한 지식 외에도 더 많은 실험과 이론을 열정적으로 하고자 하는 기계제어공학부 학우들이 결성한 동아리입니다. 기전시스템의 혁신을 이끌 엔지니어가 되고 싶은데, 정작 기전시스템의 두뇌에 해당하는 마이크로컨트롤러를 다루는 데 막대한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학우들이 많습니다. 학기 중에는 세미나를 통해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는 Arduino 보드 활용법을 배우고, 방학 중에는 재미있는 설계 프로젝트를 수행해 봄으로써, 마이크로컨트롤러에 친숙해지도록 돕는 것을 동아리 활동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비거(飛去)

나승찬 010-2373-0933



저희 비거(飛去)는 '우리나라 최초의 비행기'이며 '날아가버리다' 라는 뜻과 같이 기계공학 및 제어공학의 원리를 바탕으로 비행체에 관하여 학습, 연구하는 학술단체입니다. 1년 단위로 진행되는 프로젝트 계획에 따라 학기 중에는 세미나를 통해 비행체에 관련된 공학적 지식을 습득하고, 이를 바탕으로 방학 중에는 비행체의 제작, 시뮬레이션 및 시험비행을 통해, 항공분야로 진출하고자 하는 학부생들의 전공역량을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학부개강예배 및 수강지도 모임

일자 2013. 3. 4(월)
장소 뉴턴홀 302, 311호
참여인원 학생 140명

개강을 맞이하여 전산전자공학부 학생들이 한 자리에 모여 한 학기를 위해 하나님께 예배하였다. 이제 막 전공에 입문한 1,2학년 학생들을 위해 교수님께서 공학인증에 대해 설명해주셨고, 각 전공팀 별로 교수님과 함께 저녁을 먹으며 새롭게 시작하는 학기에 대해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학부MT**

일자 2013. 3. 15(금)
장소 오디토리움, 효암 별관2층
참여인원 85명

교수님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비전 셰어링 시간을 통해 교제의 시간을 나누면서 학부MT가 시작되었다. 전산전자와 관련된 동아리와 학회를 소개하였으며 한 학기 예산과 계획을 알리는 총회가 끝난 뒤, 레크리에이션 활동으로 도전 상식 골든벨, 과자 맞추기 등 다양한 게임을 통해 학부 사람들과 친밀해질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학부취업페스티벌**

일자 2013. 4. 11(월)
장소 뉴턴홀 313호
참여인원 54명

삼성전자, 삼성SDS, 롯데 등 대기업과 카이스트 대학원의 학부 졸업생 선배님들이 오셔서 자신이 하고 있는 일과 그와 관련된 일들에 대해 이야기 해주셔서, 취업이나 진학에 대해 구체적인 인사를 얻을 수 있는 시간이었다. 또한 삼성 전자 인사담당자께서 직접 오셔서 삼성 전자 채용에 대한 유익한 정보를 얻을 수 있었다.

외부강사특강

일자 2013. 5. 22(수)
장소 뉴턴홀 313호
강사 한국 IT융합기술협회 백영순 회장
주제 ICT 융합 기술 창조경제
참여인원 52명

창조경제에 대한 개념 설명과 ICT융합 기술사례와 및 문화와 첨단기술을 융합한 콘텐츠 산업 등을 소개하였다.

**ChipsChips**

안철균 010-4934-3843



한동대 유일한 전자공학 학회로 비메모리 반도체 설계 및 컴퓨터 아키텍처 개발을 목적으로 학회가 설립되었습니다. 현재는 SoC Robot, Analog Circuit, Embedded, Wireless communication 을 공부하고 있으며 Analog 및 Digital 회로를 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매년 신입부원을 꾸준히 선발하고 있으며, 여름방학마다 verilog 언어를 신입부원에게 가르치며 전공에 대한 이해를 넓혀주고 있습니다. 기존 부원들은 전산전자공학부에서 개최하는 캡스톤 축제에 참가하기 위해 팀을 구성해 다양한 주제를 연구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교외 대회에 참가하여 우수한 성과를 얻어 한동대학교 전산전자공학부의 이름을 외부에 널리 홍보하고 있습니다. 지도교수님으로는 전산전자공학부의 이강 교수님, 김영식 교수님이 계십니다.

GHOST

박순현 010-4515-7341



GHOST는 Global Handong Oriented Security Team의 약자로 2000년 7월 보안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모여 만든 정보보호 동아리입니다. GHOST는 한동대학교 전산동아리들 중 가장 큰 규모로, 부재중인 보안전공 교수님의 자리를 대체하여 많은 선배들이 후배들을 보안분야로 이끌어 주고 있습니다. 전산과 보안에 대하여 아는 것이 없다고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관심과 열정만 있다면 누구든지 환영합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한동 최고 전산 보안동아리 'GHOST' 에 오셔서 친목도 쏘고 함께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Linux Hackers

신대호 010-6256-6164



'Linux Hackers' 는 차세대 OS로 주목 받고 있는 리눅스의 최고의 경지에 이른 사람들 뜻합니다. 학기 중에는 동아리원들끼리 학습자료를 나누고 스터디를 하는 등 학교 공부에 열중하고, 친목 쌓기 위주로 활동합니다. 방학 중에는 각자의 관심분야에 따라 스터드를 지어 스터디를 하기도 하고, 공모전 참가 등을 목표로 프로젝트를 진행하기도 합니다. 이 때 다루는 분야는 리눅스, 임베디드 시스템,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웹 등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CRA(Computer Research Association) - 전산연구회

지승영 010-3433-6144



한동대학교 개교부터 창단된 전산연구회 CRA는 한동대학교 전산 교육과정에 기초하여 구성원에게 프로그래밍 언어 습득을 기본으로 전산 분야의 신기술을 공부하고 프로젝트, 세미나 등의 활동을 합니다. 겨울방학에는 96학번 졸업생부터 재학생 모두가 모이는 큰모임을 1박2일로 진행합니다. 특히 한동대학교 인터넷 7을 운영하고 있어, 실제 사용자들을 대상으로한 실질적인 프로젝트를 주로 진행합니다. 이 외에 '전전의 여신을 보려면 CRA로 가라' 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아름다운 여성회원들이 많이 있으며, 축구, 음악, 영화감상, 고기피터 등에서도 한동대학교 어느 동아리와 견주어 부족함 없는 환경을 제공합니다.

News

혁신센터뉴스

소외된 90%와 함께하는 공학설계 아카데미 한동대학생 지원 프로그램

"제6회 소외된 90%와 함께하는 공학설계 아카데미"지원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한동대학생들은 선착순 30명에 한하여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일정 2013. 7. 25(목) ~ 27(토)
장소 한동대학교
홈페이지 <http://hicee.handong.edu>
신청기간 2013. 6. 3(월) ~ 7. 5(금)
등록방법 <http://hicee.handong.edu> 접속 후 아카데미 신청게시판을 통해 신청
한동대학생 지원 프로그램
지원내용 및 지원인원 선착순 30명, 참가비 전액지원(15만원)
참가신청방법 신청서를 작성하여 queen@handong.edu를 통해 제출(뉴턴홀114호에서 직
접 신청 가능)
문의 김한나연구원(공학교육혁신센터) 뉴턴홀114호, 260-1526

중소기업 인턴십 지원

공학교육혁신센터에서 공학부 학생들을 위한 인턴십을 지원합니다.
지원내용 여름 방학 중 인턴십 참여시 1인당 가족회사 50만원, 중소기업 30만원, 대기업 10만
원을 지원해 드립니다.
신청방법 각 학부 사무실에서 신청 후 공학교육혁신센터로 방문
문의 공학교육혁신센터 뉴턴홀 114호 김한나 260-1526

자기계발캠프 개최 한동인을 위한 Career Camp

일정 2013. 9. 27(금) ~ 28(토) / 1박2일
장소 한동대학교
강사 한동대 김정원겸임교수(前DuPont Korea부사장, 한국리더십센터 전문코치)
주제 나의 진로(Career), 어떻게 알고 어떻게 선택을 할까?
1. 자신이 가진 역량과 원하는 비전을 연결하고
2. 현실에서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자신을 살펴보고
3. 남은 대학 생활의 방향을 정하여 준비하도록 돕는다
신청방법 E-mail 신청(queen@handong.edu) 자세한 사항은 9월 초 HISNet에 공지 예정

해외 파트너 대학과의 캡스톤 상호발표 수행

방문대학 Taylor University
방문일정 2013. 2. 4(월) ~ 2. 5(화) / 1박2일
방문학생 전산전자공학부 박신희, 이경한
발표주제 Making a promise for a meal(Android)
Bicycle Tracking System
국제 협업 프로그램인 Curriculum exchange의 일환으로 해외자매대학교인 Taylor University에서 한동대학교 캡스톤발표회가 있었다. 현지교수 및 학생 20여명이 모인 발표회
에서 Software Engineering과목에서 만든 '밥 약속 지키 어플'과 캡스톤설계2 과목의 발표
작품인 '무선통신과 GPS를 이용한 위치추적 어플리케이션'을 발표하고 돌아왔다.



공학교육인증설명회

2013년도 신입입생 및 재학생을 대상으로 공학교육인증설명회가 있었다. 2013 HanST기
간 중 개최된 이번 신입입생 대상 설명회에서 공학교육혁신센터 인증지원실 부센터장인 김인
중교수가 공학교육인증제도에 대해 설명하였고, 재학생 대상 수강지도 설명회에서 전산전자공
학부 교수들이 소그룹 모임으로 학생 개별 면담 시간을 가졌다. 설명회를 통해 인증안내서를 배
포하여 공학교육인증의 혜택과 신청방법 등 학생들에게 공학교육인증에 대한 정보를 알리는 유
익한 시간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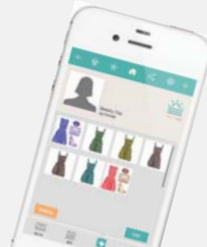


행사명	일자	장소	대상	참석인원
2013년 새내기섬김이 대상 공학교육인증 설명회	2.23(금)	올네이션스홀 오디오리움	2013년도 새내기섬김이	223명
2013년 신입생 대상 공학교육인증 설명회	2.27(화)	효암 채플관	2013년도 신입생	897명
전산전자공학부 수강지도 설명회	3.4(월)	올네이션스홀 302호	전산전자공학부 재학생	140명
전입생대상 공학교육인증 설명회	3.5(화)	뉴턴홀 114호	전입생	5명

엔지니어링 런치 Engineering Lunch	일자	발표자	소속학부	제목
	03.29	박원근	국제어문학부	북한위협과 한반도 안보 I
	04.05			북한위협과 한반도 안보 II
	04.12	강신익	GEA학부	신제품 출시 과정
	04.19	김현주	글로벌리더십학부	인구통계로 보는 미래교육
	05.03	김인중	전산전자공학부	신경망과 깊은 학습
	05.24	강병덕	상당심리사회복지학부	사회과학 연구방법론의 이해
	05.31	이혜주	상당심리사회복지학부	양적 연구방법론의 이해와 실제
	06.07	전명희	상당심리사회복지학부	질적 연구방법론의 이해와 실제

융합 캡스톤 추진

2013년 1학기 융합 캡스톤 프로젝트에 총 2팀이 선발되었다. 공간환경시스템공학부, 기계제어공학부, 전산전자공학부와 산업정보디자인학부 학생들이 모여 '무인 공용자전거 시스템, 'Co-ordinator'로 설계 프로젝트를 수행 중이다.



2013년 1학기 Peer Tutoring Session

학부	과목	이름
공간환경시스템공학부	국제개발계획	김재영
	유체역학	이안지
	재료역학	조우연
기계제어공학부	정역학	북권화
	제어회로1	김의선
	열역학	임지훈
	신호및시스템	이윤하
	자동제어	차승건
	계측공학	이성운
	기전공학수학	양세로
전산전자공학부	논리설계	김호섭
	회로이론1	송정승
	데이터구조	이혜민
	데이터구조	정중은

학생 Career Group Coaching

일자 2013. 3. 19(화)[1차] | 2013. 3. 26(화)[2차]
2013. 4. 2(화)[3차] | 2013. 4. 16(화)[4차]

장소 뉴턴홀 115호

강사 김정원겸임교수(前 DuPont Korea부사장)

프로그램 내용

- 1) Competency Assessment
- 2) Career Orientation Assessment
- 3) Career Plotting & Planning
- 4) Development Plan
- 5) Commitment & Commencement

지난 해 Career Group Coaching을 수강한 학생들의 수업 만족도가 매우 높아 올해도 한동대 학생들을 위한 Career Group Coaching 프로그램을 개최하였다. 이공계 학생들이 적성에 맞는 진로를 선택하고, 취업 이후의 Career Management를 돕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효과적인 코칭 수업을 위해 학생인원을 8명으로 제한하여 개별 지도 방식으로 운영하였다.



교수워크숍 공동개최

일자 2013. 3. 26(화) [1차] | 4. 2(화)[2차] | 4. 16(화)[3차]

장소 한동교육개발센터(HDEC)

강사 김정원 겸임교수(前 DuPont Korea부사장, 현 한국리더십센터 전문코치)

주제 교수 대상 Career Coaching 프로그램

교수들이 학생들에게 Career Coaching을 지도하는데 보다 효율적으로 지도할 수 있도록 동고자 공학교육혁신센터와 교육개발센터 공동주관으로 Career Coaching프로그램을 개최하였다. Career Coaching에 관한 기본적인 Frame 소개 및 기본적인 코칭 tip에 대한 강연을 듣고 Career Coaching 실시 후, 서로의 경험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연합학부회의 개최

일자 2013. 4. 10(수)

2단계 2차년도 혁신센터 주요사업계획을 보고하고 교수들 간의 의견교환의 장을 만들고자 마련된 연합학부회의가 김영길총장 및 3개 공학부, GEA학부 등 교내 교수 25명이 참석한 가운데 상황리에 개최되었다. 이번 연합학부회의에서는 각 학부의 비전을 소개하고 총장 메시지를 듣는 시간을 가졌다.



2013년 1학기 이공계리더십 공개특강

일자 2013. 5. 21(화)
장소 뉴턴홀 115호
주제 자신있게 면접보고 듀폰에서 재미있게 일하는 법
강사 DuPontKorea 고동진이사
한동대학교 학생들에게 실제 면접 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기업인사담당자를 초청하여 특강을 진행하였다. 'DuPont Introduction', 'Talents in DuPont & Interview tips' 내용으로 DuPont 인제상과 함께 기업체 면접 사전준비 및 면접 시 기억해야 할 사항에 대해 조언하는 시간을 가졌다.



제5회 소외된 90% 를 위한 창의설계 경진대회

일자 2013. 5. 24(금)
장소 한양대학교 서울캠퍼스 한양종합기술원(HIT) 6층
소외된 이웃을 위한 독창적인 기술 경진대회로 발전하고 있는 소외된 90%를 위한 창의적 설계 경진대회가 5회째를 맞이하였다. 올해는 해외뿐만 아니라 국내외 소외계층 분야의 작품과 인문, 비즈니스 등의 융합분야까지 참가분야를 확대하였다. 한동대학교는 총 3팀이 참가하여 해외수집분야와 기술 융합분야에서 동상을 수상하였다.

상명	부상	팀명	작품명
(주)오마린 대표상	상장, 상금30만원	물 then 동산	인도 낙타섬을 위한 간이 소형 eco-system
(주)우진 대표상	상장, 상금30만원	Joshua GIS	인도 낙타섬 지역 개발을 위한 Micro GIS System



Global Engagement Project(GEP) 해외전공봉사활동 지원

학생들의 글로벌 퍼스펙티브와 제한된 조건 하에서의 실제적 문제해결능력 배양을 위한 현지 방문 서비스 러닝 프로그램

방문기간 2013. 7. 7(일) ~ 7. 28(일)
방문국가 아프리카(말라위)
프로젝트 말라위 모링가 공동체 사업 프로젝트
참여학생 김다윗, 박선후, 박지원, 변주섭, 손남일, 이규연, 이진실, 최부경, 최하혜

본 팀은 3년의 시간을 두고 말라위 살리마 지역의 모링가 열매를 활용한 기술 개발 및 식품 가공 연구를 지원하여 공동체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하고 이를 통해 경제적 자립기반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현지에 적절한 수동 모링가오일 추출기를 설계하여 모링가 기름과 잎을 가공하고, 고부가가치의 제품(천연비누, 천연화장품, 건강식품)을 개발할 예정이다.

공학교육혁신센터 직원 동향



김보라연구원

안녕하세요. 공학교육혁신센터에서 공학교육인증 지원업무를 담당했던 김보라연구원입니다. 2년동안 업무를 맡으면서 많이 부족했지만, 주신 사랑과 배려 덕분에 기쁨으로 일할 수 있었습니다. 늘 학문에 대한 열정과 사랑의 마음이 넘쳐나는 한동 캠퍼스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류원선 연구원

안녕하세요. 이번에 공학교육혁신센터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하게 된 01학번 전산전자공학부 졸업생 류원선입니다. 졸업생으로 학교에서 그리고 전산전자 후배들을 위하여 일하게 되어서 참 감사합니다. 앞으로 공학인증에 참여하는 학생들과 관심 있는 학생들의 성공적인 대학생활을 위해 많이 연구하고 지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wonsunryu@handong.edu 054-260-15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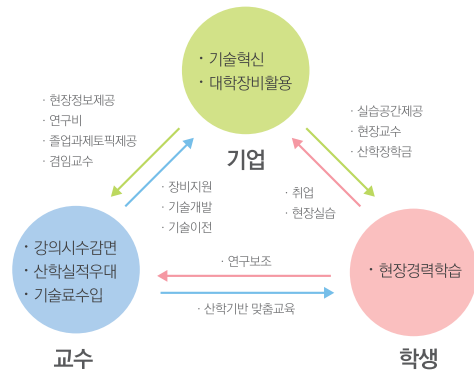
한동대학교 가족회사 제도안내

〈한동대학교 가족회사 제도〉는 세상을 바꾸는 회사의 구축을 위하여
대학과 기업의 긴밀한 협력을 통한 상생문화를 만들어가는 협력의 장입니다.

가족회사 제도란?

가족회사(HGU Enterprise Partnership Program)제도는 대학과 기업체간 기술·경영지도 및 공동연구 등의 기술교류와 교수·학생의
현장연수, 실협·실습장비 및 대학시설물을 상호 활용하는 등의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상시적인
산학협력체제를 말합니다.

운영체계



주요협력사항

- **현장실습 지원센터:** 기업은 현장실습 지원센터의 맞춤형 교육에서 양성된 현장 적응력이 우수한 전문기술인력을 인턴십의 형태로 공급받을 수 있고 이는 기업의 기술력 향상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대학은 산업체를 공동연구과제수행, 겸임교수임용, 교원의 현장연수 및 학생의 현장실습 등으로 활용하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 **공용장비센터를 활용한 연구개발 지원:** 공용장비센터는 대학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인력, 연구시설, 공용장비 등을 지역사회 내 기업들에게 적극 제공함으로써 상생 협력을 구축합니다. 기업은 이를 자사의 연구개발에 적극 활용하여 기술경쟁력을 증진시킬 수 있습니다.
- **창업보육센터 운영:** 한동대학교 창업보육센터는 신규 입주기업의 유치와 벤처기업의 창업을 적극 유도하고 있습니다. 대학은 관련 기술정보와 교육기회 등을 제공하게 되며, 기업은 대학의 연구개발성과와 고급인력 및 기자재 등을 지원받게 됩니다.
- **기업의 문제 해결을 위한 현장과제 수행:** 기업의 문제를 학생과 지도교수로 구성된 캡스톤 과제팀을 통해 해결합니다.
- 이를 위하여 산학협력중점교수들이 중심이 되어 기업과 대학 사이의 산학협력 체계를 구축합니다.
- 기업의 역량을 극대화 할 수 있는 다양한 자원 및 지원이 있습니다.

가족회사 가입 후, 어떠한 도움을 받을 수 있는가?

자문 서비스

- 교수진의 기술지도 및 경영자문
- 한동대 공익법센터를 통한 법률자문
- 글로벌 문화콘텐츠 연구소를 통한 광고 및 홍보 지원

장비 활용 혜택

- 우리대학교의 연구 기자재 공용장비 활용 및 할인혜택 부여

산학교류 기회 제공

- 기업의 문제 해결을 위한 캡스톤과제 수행
- 산업체 현장 전문기술자를 겸임교수로 임용가능
- 각종 정부재정지원사업(중소기업청, 지식경제부, 창업보육 등)에서 가족회사 우선지원 및 지원사업 안내
- 매 학기 대학에서 주관하는 산학의 날 행사를 통해 교류의 기회를 가질 수 있음
- 채용 희망시 우리대학교 졸업생 대상 설명회 기회 및 아르바이트 학생 활용기회 제공

교육 프로그램 참여

- 직원소양교육 제공
- 가족회사 임직원이 우리대학교 최고경영자과정에 입학시 교육비 감면

기타

- 통번역연구소를 통한 통번역 지원

가족회사 가입 현황

협약체결일	기업명	대표자	설립일자	주생상품	대표전화
2012.05.02	(주)테크노니아	성원용	2000.04.03	소프트웨어	02) 2108 - 8123
2012.05.16	타이코에이엠피 유한회사	한치희	1986.01.10	Connector	053) 850 - 0000
2012.06.16	라이포인터랙티브(주)	김보경, 임종민	2010.03.11	게임소프트웨어	070) 7225 - 1109
2012.09.03	(주)제철세라믹	오명환	2000.04.01	규산질비료, 페로니켈 등	054) 278 - 2011

가족회사 관련 문의

- 기업인이려면 누구나 가입 가능하며(소재지, 규모 등 불문), 회비 등의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무료)
- 가입신청서와 사업자등록증을 한동대학교 산학협력단으로 보내주시면 기술분야 등을 고려하여 지도교수와의 매칭으로 최종 등록이 완료됩니다.(한동대학교 가족회사 증서를 보내드립니다.)

주소 :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흥해읍 한동로 558 한동대학교 산학협력팀
연락처 : TEL 054-260-1272 / FAX 054-260-1279 / E-mail : ldw@handong.edu



www.technonia.com

Technonia
“사람과 문화를 꿈꾸는 기술 공동체”



(주)테크노니아는 한동대 공학부의 뜻있는 우수학생들을 위한
인턴십과 신입사원 모집 문호가 열려 있습니다.
인턴 및 취업에 관심있는 사람은 공학교육혁신센터 김한나
연구원을 통해 연락요망

신입 및 경력 채용 분야
Windows 응용 프로그래머(C, C++, MFC), Embedded 디바
이스 응용소프트웨어 개발자(x86, ARM, DSP 기반 개발자),
Multimedia 하드웨어 개발자



주요 제품



1. Multimedia Device : 무선 멀티 충전기, 휴대용 Bluetooth 키보드,
휴대용 Bluetooth Speaker
2. 교육용 Multimedia Device : Speaking Pen, Multi-Pen
3. 교육용 Contents 제작 솔루션 : TEDI Plus

주요 솔루션



1. 동영상 변환 프로그램 Umile Encoder
2. 실시간 멀티미디어 변환 / 스트리밍 솔루션 Umile Air
3. 모델 장치를 이용한 인터넷 자동 연결 프로그램 Connection Manager
4. Camera를 이용한 원격 모니터링 Application Mom's View
5. N-Screen 솔루션 MOVISK

TECHNIONIA

(주)테크노니아 주소: 서울시 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235번지 한신 IT타워 1101호 제품/채용문의: 02 2108 8123

제6회

Design with the other 90%

소외된 90%와 함께하는 공학설계 아카데미

2013년 7월 25일(목) ~ 27일(토)

장소 한동대학교



신청기간 2013년 6월 3일(월) ~ 7월 5일(금)
신청방법 <http://hicee.handong.edu> 접속 후 등록신청
참가비 15만원
대상 개발도상국의 빈곤문제에 대한 창의적 설계로
나눔을 실천하려는 모든 대학생

주최 (사)나눔과기술, 한동대학교
주관 한동대학교 공학교육혁신센터
후원 부산대학교 공학교육거점센터
문의 김한나 연구원 054 260 1526 | hicee@handong.edu
최은경 간사 042 863 7775 | sti.cfse@gmail.com
기간 내에 사전등록을 꼭 해주시길 바랍니다.
단체신청은 별도 문의 바랍니다.

본 아카데미는 적정기술 강의와 개발도상국 학생과 함께하는 팀별 설계활동 및 발표회로 진행 됩니다. (설계문제 사전공지)